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6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8년 4월 1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018년 투쟁 시작했다!

뜨거웠던 확대간부 전진대회

지부가 12일 확대간부 전진대회를 통해 2018년 투쟁을 시작했다. 이 날 전체 지회 확대간부 동지들 150여명이 대거 집결하며 뜨거운 투쟁 열기를 보여줬다. 집결한 확대간부 동지들은 2018년 투쟁의 시작을 당당하게 선포했다. 지부는 이 힘을 바탕으로 올해 임단투와 지역의제 모두 쟁취하는 승리의 한 해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임단투와 지역 의제 모두 쟁취하자

지부가 전진대회를 대전노동청에서 개최한 이유는 올해 처음 제기하는 지역의제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임단투를 넘어서 지역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을 제기하는 의미를 확인하고 확대간부 동지들과 함께 결의하기 위해서였다. 확대간부 동지들은 사업장 임단협과 함께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지역 의제가 함께 쟁취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는 전진대회 후 대전노동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부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지부와 대전노동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으로 이동해 지부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업장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투쟁 벌이자

12일 전진대회와 지부교섭 상견례로 이제 투쟁이 시작됐다. 지부는 사업장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임단투를 통해 조합원의 삶을 향상시키는 투쟁, 지역의제를 통해 지역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향상시키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열려있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산별노조로 거듭날 때이다.

11년을 돌아보고 다시 결의하는 콜텍 투쟁

콜트-콜텍의 투쟁이 11년을 맞았다. 기나긴 세월이 보여주듯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역과 전국의 연대를 통해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11년을 맞은 지금 다시 또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지회는 11년을 맞아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1인시위, 문화제, 벼룩시장, 상영회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일에는 투쟁 12년 다시 시작!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연다. 11년째 묵묵부답인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계획이다. 지부는 지부교섭을 1시간 늦추고 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부 결의금 등으로 조합원 동지들이 콜텍지회에 보내준 연대의 힘이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주요 일정 *

- ☐ **2차 중앙교섭**
4/17(화) 14시, 대전 경하온천호텔
- ☐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농성**
4/18(수) 11:00 대전 박범계의원실
4/22(일) 10:00 충북 민주당사 앞
- ☐ **산재예방 무력화 노동부 규탄 집회**
4/18(수) 14시00분, 세종 노동부 앞
- ☐ **콜트콜텍 투쟁 11주년 결의대회**
4/19(목) 12시, 서울 등촌동 본사
- ☐ **2차 지부교섭**
4/19(목) 16시, 보쉬